

# Faith Community Education for Shalom in Conflict Society : Focusing on ABCD, A.I 4D, and Dialogue

Ha Eun Chung  
(Hasim Community)

## Abstract

**Purpose of study:** This study seeks practical way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church and religious community members in modern society living in an age of division and conflict.

**Research content and method:** First, the phenomenon and causes of a society of division and conflict were examined. Second shalom was studied to restore division and conflict. Third values were discovered along with the ABCD theory for the development of an asset-based community in order to solve a society of conflict with shalom. 4D cycle strategy of A.I. Fourth in order to restore the conflicts of the faith community to shalom, the ABCD theory and the 4D of A.I. were presented with ways to manage conflicts, minimize division, and restore shalom through dialogue and storytelling tool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e various conflicts in our society can be restored when all Christians discover their vocation and talent through the method of dialogue for shalom, solidarity as a community of faith, and achieve shal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Shalom faith community through dialogue for Shalom.

## Key Words

Conflict, shalom, ABCD theory, A.I 4D cycle, Dialogue

## 갈등사회의 살롬을 위한 신앙공동체 교육 : ABCD, A.I 4D, 대화를 중심으로

정하은  
(하심공동체)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갈등을 풀어 갈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분열과 갈등사회의 현상을 살펴보고, 둘째, 분열과 갈등 회복을 위한 살롬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셋째, 갈등사회를 살롬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ABCD 이론과 함께 가치를 발견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A.I의 4D 사이클 전략을 설정하였다. 넷째, 신앙공동체의 갈등을 살롬으로 회복하기 위해 ABCD 이론과 A.I의 4D에 대화와 이야기 도구로 갈등을 관리하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살롬을 회복해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사회와 신앙공동체가 가진 다양한 갈등과 분노를 풀어가고 최소화하려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롬을 이루어가야 한다.

### 〈 주제어 〉

갈등, 살롬, ABCD이론, A.I 4D사이클, 대화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달로 초연결성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각 개인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남녀 갈등의 현실을 79.8%로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김윤덕, 2022).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통합 척도에 대한 응답은 10점 만점에 4.17이었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고, 한국의 전반적인 갈등수준은 '심하다'라고 80%가 답했다(연합뉴스, 2019). 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세대, 남녀, 노사,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업종 간 등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갈등이 편재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스윗(Leonard Sweet)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기술, 함께 사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였고(레너드 스윗, 2007, 14), 김난예(2014)는 현대사회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그 문화로 인해 오히려 소외감과 공허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고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였다(김난예, 2014, 26-30). 이향순(2019)은 타인에 대한 공감 상실로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폭력 같은 아픔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한다(이향순, 2019, 406). 즉 관계적 인간이 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먹을 것들이 풍족해도 서로를 향한 분노와 갈등으로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와 교회 속에 만연한 분노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먼저 분열과 갈등사회의 현상을 살펴보고, 분열과 갈등 회복을 위한 살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갈등사회를 살림으로 풀어가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ABCD이론과 가치를 발견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A.I의 4D 전략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앙공동체의 갈등을 살림으로 풀어가고 회복하기 위해 ABCD이론과 A.I의 4D에 대해 도구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살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II. 갈등사회의 현실

### 1. 갈등 이해

인간이 살아가는 곳 어디에나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葛藤)이란 칩(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얽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거나 연대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현

상이다. 갈등(conflict)은 라틴어 conflictus의 과거분사인 configere에서 유래되어 com (together)과 fligere(to strike)가 결합하여 서로 부딪히거나 때리는 것(Strike together)을 의미한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1996, 396). 즉 갈등이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치관이나 의견에 대한 불일치, 반대, 투쟁, 문제의 상황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갈등 중에 내적갈등은 본능과 자아의 갈등 혹은 자아와 초자아와의 갈등처럼 본능과 이성, 정신과 마음의 작용에 의한 갈등이다. 외적갈등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정치적, 성격적, 성향적, 역할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가치적, 경제적, 구조적 등 다양한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등 다양한 집단이나 형태로 드러난다(Barki & Hartwick, 2004, 216-244).

내적갈등과 외적갈등 외에도 영적 갈등이 존재한다. 성경에 ‘갈등’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으나 Conflict로 표현된 곳이 있다. 하박국 1:3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고 부르짖으며 갈등 상황이 변론과 분쟁으로 표현되었고, 고린도후서 7:5은 바울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였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며 외적 내적갈등을 드러냈다. 갈라디아 5:17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며 영적 갈등을 드러낸다. 마26:41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는 영적 갈등을 표현하셨다.

갈등에는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들이 있다. 내적갈등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따르려는 본능과 그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제어하는 이성 사이에서 발생하며, 외적갈등은 나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인 사이에서 발생한다(최해진, 2004, 28). 또 갈등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형태로든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때 발생한다(정주진, 2010, 86).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고 심각하더라도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김태홍 외, 2005, 11).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게 경쟁, 협력, 회피, 순응, 타협으로 나타난다. 갈등이 상호 간 파괴적이고 폭력적 결과나 행태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체제나 질서를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나 도전의식 등을 자극하기도 하며, 의견충돌을 통해 더 좋은 생각이나 사고를 하게 되어 변화의 추진력을 갖는 순기능도 있다(안광일, 1994, 203-211). 또한 갈등을 무조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발전적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 2. 갈등과 분노 사회

갈등과 분노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뉴스1과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타파크로스(Tapacross)

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정치적 이념, 젠더, 세대, 불평등, 일터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진영갈등은 2019년 67.1%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72.5%로 상승하였고 젠더갈등은 동일한 기간동안 14.5%에서 15%로, 불평등지수는 6.6%에서 9%로, 일터의 갈등은 2.2%에서 5.3%로 상승하였다(뉴스1, 200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해 ‘갈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3위였다(김영배, 2021). 한국리서치가 2023년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을 조사한 결과 여야(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인한 갈등 94%, 경제적 빈부격차 갈등 88%, 정규직과 비정규직 84%, 기업가와 노동자 간 갈등 88%, 세대 간 갈등 84%,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갈등 80%로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정찬, 2023). 이러한 분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통합과 연대의 사회가 아닌 분열과 갈등의 사회란 것을 알게 해준다.

기사나 언론을 통하지 않아도 다양한 이유와 기준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갈등은 너무 다양하다. 종교와 사상, 정치적 성향, 성별과 나이뿐 아니라 젠더, 지역, 세대, 노사, 이념 갈등 등 각처에 갈등이 만연해 있다. 이뿐 아니라 뒷사람이나 연장자를 비하하는 ‘꼰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젊은 세대를 비꼬는 ‘MZ세대’ 등 갈등이 언어적 표현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안에서 교파 간의 갈등과 교회 간의 갈등에서도 나타난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직분과 위계 제도로 인한 갈등이 생겨났다(Moltmann, 2011, 41).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욕망의 자리로 변질되고, 직분을 이용한 지배적 형태가(정성욱, 2018, 115-117) 성도들끼리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

다양한 갈등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분노와 폭력으로 드러났다. 2023년 7월 23일, 신림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8월 3일,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인도로 돌진하여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네 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범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들을 기폭제로 인터넷에는 수많은 문지마 폭행 혹은 살인예고가 등장하였다. 2023년 8월 4일 강남역 살인예고, 8월 7일 혜화역 한 남성의 살인예고, 8월 9일 동대구역 살인예고 등 살인예고를 올린 사람 중 실제로 흥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도 있었다. 범행자들은 특정인을 향해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사회에 대한 불만, 변하지 않는 사회와 현실 등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쌓여 폭력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 Ⅲ. 갈등 회복을 위한 살롬

세대, 성별, 지역과 연봉, 정치적 성향과 직업, 직분과 교파의 다름으로 생겨난 다양한 갈등들,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생겨난 갈등들을 회복하고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며 세상과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와 종교 안에서 평화와 연대를 이루어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모든 갈등을 넘어 평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방법은 '살롬'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 1. 살롬, 평화의 원형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함께 사는 모습은(이사야 11:6-8) 살롬(Shalom)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함께 살 수 없는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먹는 것으로 싸우거나 갈등하지도 않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는 사자와 짐승들과 독사들과 어우러져 함께 놀 수 있는 평화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세상, 이것이 살롬이다. 살롬은 인종·세대·민족·지역·나이·직분·성별·직업 등 모든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하고 연대하는 동력이며 갈등을 회복하는 원천의 힘이다.

'살롬'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정의, 평화와 기쁨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Plantinga, 1998, 35). 살롬을 '평화(Peace)'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한정하는 것이다. 히브리 사전에서 살롬은 '평화, 복지, 안전, 완전, 건전' 등을 의미하고, 신체적 안전으로서의 살롬, 질병과 아픔이 없는 건강한 육신 상태로서의 살롬, 전쟁과 억압이 없는 상태로서의 살롬이다(민영진, 1995, 13-15). 또한, 전쟁과 폭력, 갈등과 분열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억압이나 착취가 없고 정의와 공평, 사랑과 환대,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는 상태, 즉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는 상태가 '살롬'이다(조은식, 2004, 145). 히브리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에서 정의와 공의, 사랑과 연합으로 분열과 분쟁, 갈등과 분노가 사라진 상태를 살롬이라 표현하였다(Plantinga, 1998, 13-15). 살롬은 하나님과의 사랑, 정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전쟁과 폭력, 억압과 핍박,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 평안과 희락, 화해와 환대가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평화의 원형상태라 할 수 있다.

#### 2. 살롬, 하나님 나라의 핵심

예수는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차별과 갈등, 불의와 폭력을 평화와 연대로 회복시키며 위로와 기쁨을 선포하셨다. 이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유토피아적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질 하나님나라로 선포한다. 누가복음 4장의 사명선언문은 우리가 가게 될 ‘공간’으로서의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서의 하나님나라였다. 현실에서 분노와 분열, 갈등과 차별, 억압과 핍박,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나라의 살롬을 통해 위로와 기쁨, 소망과 희망, 회복과 연대로 변화된다.

하나님 나라의 살롬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다(김세윤, 2003, 51).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은 불의가 정의로, 폭력이 화해로, 분열이 연대로, 갈등이 환대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둘째, 하나님나라의 살롬은 먼 나중에 임하게 될 어떤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이다. 예수는 “미래적 현재”인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현재적 미래”로서 지금 이 자리에 벌써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한다. 따라서 살롬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원래 상태인 살롬으로 회복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갖는다. 셋째, 살롬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 14:17). 인간이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하고 쌓아온 전통이나 규율, 율법이나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의를 행하고,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 3. 살롬, 관계의 회복

살롬을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살롬은 개개인이 누리는 장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심리적 안정, 외부의 억압이나 공격이 없는 상태, 그리고 삶의 번영과 평안이 살롬이다. 공동체적 차원의 살롬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우호적 관계, 호의적 관계, 비폭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이다(Duchrow, Liedke & Shalom, 1989, 118).

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비폭력적인 평화 관계를 넘어 안녕과 연합, 환대와 평화를 의미하며 갈등과 대립,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황적 차원뿐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폰 라드(G. von Rad)는 자신의 논문에서 살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어떠한 ‘상태’라기 보다 ‘관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G. von Rad, 1961, 402-406). 살롬을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트킨슨(D. Atkinson) 또한 평화는 올바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최상

의 평화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생되고 지속되며, 올바른 관계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속에서 정의와 평화로 드러나는 관계를 의미하였다(Atkinson, 1992, 159).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적대나 분노, 분열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정의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 한다(Wolterstorff, 2007, 143-150). 샬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가, 세상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김균진, 2016, 263-267).

샬롬은 폭력이나 살인, 전쟁이나 대립,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보장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 사랑과 연합을 실천함으로 경험하는 평화를 모두 포함한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인간과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정,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이다.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통해 '상태적 개념'으로서의 샬롬 뿐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서 모든 평온한 상태, 평화를 이루는 상태를 포함한다.

## IV. 갈등 해소를 위한 이론 전략 및 도구

### 1. ABCD(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론

ABCD이론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의 그레츠만과 맥나이트(Kretzmann & McKnight, 1993)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asset)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자산은 크게 개인의 능력, 시민조직, 지역기관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인의 능력이란 개인이 가진 재능과 교육적 배경, 기술과 지식 등을 의미하고, 시민조직은 종교나 문화, 운동이나 예술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임을 말한다. 지역사회는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 학교, 소방서, 교회와 같은 공적 기관들이며 기타자산은 물리적 구조적 특성을 가진 건물, 도로, 자연, 환경을 지칭한다. 따라서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개발의 ABCD 이론은 지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발견, 동원,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ABCD 이론은 5단계를 통해 활성화된다(Kretzmann & McKnight, 1993, 345-354). 첫째, 자산의 지도화(mapping asset)로서 지역사회의 자산의 역량을 이해하고, 자산의 지도화를 통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둘째, 관계 구축(Building relationships)으로 자산의 지도화로 파악된 자산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관시킨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개인들이 연결되고 시민 모임이 학교나 공공기관과 연계되고 다양한 사적·공적 모임들의 관계를 서로 형성시킴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되며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셋째, 정보 공유의 활성화(Mobilizing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haring)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자산과 개인의 재능을 연결하여 각자의 능력과 기술에 맞게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단계이다. 넷째, 실행이다. 각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획과 비전을 자산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외부 자원의 활용(leveraging outside resource to support locally driven development)이다. 상위 네 단계를 통해 각자의 재능과 역량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 및 단체들과 연계되어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후 외부 자원과의 결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한상일, 김경희, 2013. 153-180).

## 2. A.I(Appreciate Inquiry)의 4D 전략

ABCD이론을 잘 수행하려면 A.I, 즉 강점탐구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쿠퍼라이더(David Cooperrider)에 의해 고안된 A.I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긍정적 탐구로서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Bushe, 1995, 14-22). A.I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이야기가 바탕이 되며,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성을 갖게 한다(Bushe, 2007, 30-35). 즉 A.I 전략은 타인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와 지식을 수정 보완 확장해가며 실생활에 접목하는 것인데(강인애 외, 2011, 1-26), 이는 Discovery-Dream-Design-Destiny의 4D 사이클로 구성된다.

발견하기(Discovery)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나눔으로 자신의 강점이나 잠재력,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꿈꾸기(Dream)는 Discovery 단계에서 발견한 긍정적 가치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 꿈꾸게 한다. 디자인하기(Design)는 함께 꿈꾸었던 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기획한다. 실천하기(Destiny)는 구체화한 미래의 이상적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다(Cooperrider & Whitney, 2005, 56-83). 즉 Discovery(가치발견)-Dream(꿈꾸기)-Design(디자인하기)-Destiny(실천하기)의 형태로 대화와 이야기, 경험 공유를 통해 자신이 가진 긍정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에 기반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 스스로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강점전략 4D의 특징이다.

### 3. 갈등을 풀어가는 도구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이야기에는 인간 배경 사건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어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온갖 문제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이 들어있고, 문제 상황과 맥락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내재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려운 삶의 복잡성, 다면성, 인간 간의 갈등, 미묘한 심리적 문제 등은 사람들이 문제 상황과 해결이라는 과정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만의 이야기 즉 독백이 아닌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며 상호작용하는 대화를 원한다. 술라에르마허가 대화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교제의 방법이라 말한 것처럼(김동현, 2014, 245), 인간은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대화의 틀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며 의미를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한다. 대화는 대화를 이루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질문, 제안, 설득,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인간적 관계, 유대적 관계를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대화는 마음을 공유하게 하며 상대방의 진의를 이해하고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열어주지만,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땐 오해와 왜곡, 적대와 증오를 증폭시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대화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조건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대화가 상호적이지 않거나 동시적 쌍방향성이 아니면 언어적 폭력이나 사실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이는 곧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 말과 언어적 표현을 한다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느냐가 대화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대화의 목적에 맞는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며, 그 표현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되 비난하거나 비판 비난 트집 잡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더 나아가 혼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말하고 듣기의 순서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으면 갈등적 대화로 변질된다. 갈등적 대화는 요구나 명령, 비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책임회피나 침묵으로 대화가 종결된다. 이런 대화는 결국 사람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손달임, 2008, 70-83).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온전한 대화는 충고 조언 비판 판단 정죄 명령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 존중, 수용,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화는 혼자 말하는 대답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도록 경청하는 것이다.

## V. 신앙공동체의 갈등 회복

각 분야와 계층, 세대와 성별, 지역과 직업 등 우리가 살아가는 각계각층에 만연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쟁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연구들과 갈등의 과정과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상 제시 및 주민 참여 확대, 제3자 개입방식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갈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편재해 있고 심화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과 해결책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갈등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갈등은 집단,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 이슈 등과 같은 외부환경과 개인의 가치, 경험, 생각, 이념, 감정과 같은 내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의 갈등을 한쪽 측면에서만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신앙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살롬 대화를 통한 살롬 신앙공동체의 형성이다.

### 1. 살롬을 위한 대화

다양한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ABCD이론과 A.I 4D 전략을 활용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가진 갈등의 문제는 물론 자신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꿈꾸며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대화해야 한다.

#### 1) 발견하는 대화

발견하는 대화(Discovery)의 핵심은 깊은 대화이다. 대화는 먼저 나를 발견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대화’이다. 삶이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 한 날의 삶을 살아내려고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낸다. 마음 돌봄이 없으니 자신의 감정은 업앤다운 요동치고 짓눌린 분노와 짜증의 불안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로 삶 밑에 자리 잡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된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이 용납되고 수용되며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 이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존재론’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또 ‘타인과의 대화’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

하며 삶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이다. 이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 인정 지지하며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서로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돌보며 갈등을 해결하고 살롬을 이루어간다. 따라서 발견하기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 및 강점과 달란트를 발견하며 '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린다.

## 2) 함께 꿈꾸는 대화

함께 꿈꾸는 대화(Dream)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며 회복되어 살롬을 누리는 상태를 함께 꿈꾸는 것이다.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회복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삶을 이해한다면 비전을 나누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갈등 없는 사회와 신앙공동체의 살롬 상태를 꿈꿀 수 있다. 각자 관계에 있는 갈등문제와 신앙공동체나 교회에 만연된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살롬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통해 살롬을 꿈꾸는 것이다. 내가 꿈꾸는 살롬의 관계(부부, 자녀, 이웃, 직장동료, 교회 성도 등 나와 연관된 모든 관계)는 무엇이며, 신앙공동체(가정, 학교, 직장, 동교회, 모임, 교회, 등)가 꿈꾸는 살롬 상태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살롬 사회를 꿈꾼다. 분열과 갈등,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공동체와 지역사회, 세상을 위해 내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 어떻게 살롬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이다.

## 3) 만들어가는 대화

만들어가는 대화(Design)는 교회와 신앙공동체에 만연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롬을 실천할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을 설계한다.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부터 직장동료와 교회 성도들, 친구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구상해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집단과 집단의 갈등, 집단과 개인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꿈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 어떤 재능과 어떤 꿈을 가졌으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해 줄 장을 마련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살롬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롬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연합과 연대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와 신앙공동체는 성도들의 삶을 지원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한다.

#### 4) 실천적 대화

실천적 대화(Destiny)는 갈등과 분열을 회복하고 살롬의 하나님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의 재능과 비전을 발견하고 서로의 삶과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롬을 꿈꾸고, 이 살롬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 말과 행동으로, 몸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다.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실천리스트를 작성하되 거대하고 거시적인 실천보다는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적인 실천리스트를 포함하여 함께 연합하여 살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공동체적 실천리스트를 함께 작성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 살롬 실천 일기를 써 보는 것도 좋다.

## 2. 살롬 신앙공동체

살롬 신앙공동체는 앞서 제시했던 ABCD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각 교회나 신앙공동체는 각 공동체가 가진 모든 자산들이 어떤 재능과 달란트, 비전과 소명을 가졌는지 조사하여 지도화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 자산들을 어떻게 연대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 근거 틀을 마련할 관계를 구축한다. 이는 각 개인이 가진 재능과 능력, 달란트와 비전을 그들이 속한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예배·섬김·교육·봉사·선교 등 각 영역에서 각개전투의 방식이 아닌 연합과 연대적 활용으로 살롬 신앙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그들의 비전과 달란트, 재능과 소명을 교회나 공동체에 국한하지 않고 각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살롬 신앙공동체가 교회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살롬 신앙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확장성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들과 신앙공동체들이 각 지역에 속한 정부 기관, 민간기업, 모임 등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교회나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강점을 이해하며, 그것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공유한다면 우리 삶에 편만한 다양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회가 이제까지 양적 부흥이나 성장을 목표로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을 외면했다. 때론 악한 영의 공격이라 치부하였고, 때론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고난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겼다. 교회 내의 갈등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의 문제

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 갈등들을 해결하거나 해소시키지 못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동적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한 서로가 가진 강점과 비전을 발견하고 공유하여 이 갈등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살롬 신앙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갈등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라 생긴다. 또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교회나 신앙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로부터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교회나 신앙공동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모임들과 연합하여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살롬 신앙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역사도 더불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교회나 신앙공동체는 각각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강점과 특징, 달란트와 비전을 잘 지도화하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살롬 신앙공동체로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VI. 나가는 글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진 이성과 노력을 가지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갈등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일까? 본 논문을 통해 교화와 신앙공동체의 갈등을 '살롬'의 상태로 풀어 갈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자는 갈등을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결의 열쇠인 '살롬'을 ABCD이론과 A.I의 4D 전략에 맞추어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을 기독교 신앙공동체 교육에 접목하였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강점으로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정과 지지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자산을 지도화하고 관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활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Discovery), 그 소명으로 하나님나라의 살롬을 이루는 꿈을 꾸며(Dream), 삶의 자리에 만연한 다양한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하고(Design) 이를 소명과 사명에 맞게 삶을 통해 실천해가는(Destiny) 4D 사이클을 설계하였다.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도구는 이야기와 대화이다.

교회의 건물은 갈수록 커지고 화려해지며 인터넷엔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분노와 폭력을 유발하는 갈등이 여전히 교회와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주지도 않는다. 갈등 관리와 극복 및 해결은 살롬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중재하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철저히 나 자신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셔야 한다. 성령 하나님은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계신다.

## 참 고 문 헌

- 강인애, 김현우, 황선하 (2011). 구성주의 기반 경제 체험교육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변화: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 교육 연구*, 26(2), 1-26.
- [Kang, I. A., Kim, H. W. & Hwang, S. H. (2011). Students' perceptual changes on multiculturalism : A case study of a constructivism-based economy education camp.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6(2), 1-26.]
- 김균진 (2016). *예수와 하나님나라*. 서울: 새물결플러스.
- [Kim, K. J. (2016). *Jesus & the kingdom of God*. Seoul: Holywaveplus.]
- 김난예 (2014). 현대인들의 영적 공감과 공감적 학습. *기독교교육논총*, 37, 28-32.
- [Kim, N. Y. (2014). A study on the postmodern people's Spiritual empathy and empathic learning.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28-32.]
- 김동현 (2014). 올바른 형태의 대화 또는 소통:가다머의 대화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245-265.
- [Kim, D. H. (2014). An ideal form of dialogue or communication: Focusing on gadamer's dialogue and habermas's communication.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8(1), 245-265.]
- 김세운 (2017).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 [Kim, S. Y. (2017). *What is the gospel*. Seoul: Durano]
- 김태홍 외 (2005).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Kim, T. H. et al. (2005).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for national integration*.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민영진 (1995). *평화, 통일, 희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in, Y. J. (1995). *Peace, unity, jubilee*.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손달임 (2008). 갈등적 대화의 원리와 구조 연구. *이화어문학회*, 26, 70-83.
- [Son, D. Y. (2008). 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structure of conflict dialogue. *The Society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6, 70-83.]
- 안광일 (1994). *정부 갈등 관리론*. 서울: 대명.
- [Ahn, G. I. (1994).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theory*. Seoul: Daemyung.]
- 이향순 (2019).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405-435.
- [Lee, H. S. (2019). A study on other-oriented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empath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405-435.]
- 정성욱 (2018).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 서울: 큐리오스북스.
- [Jung, S. W. (2018). *Korean Church must change like this to live*. Seoul: Curiousbooks]
- 정주진 (2010).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서울: 아르케
- [Jung, J. J. (2010). *Conflict resolution and korean society*. Seoul:Arche.]
- 조은식 (2004). 기독교 평화교육으로의 통일교육. *한국개혁신학*, 15, 143-182.
- [Cho, E. S. (2004). Unification Education As Peace Education. *Korea Reformed Theology Society*, 15, 143-182.]
- 최해진 (2004). *갈등의 구조와 전략*. 서울: 두남.
- [Choi, H. J. (2019). *Structure and strategy of conflict*. Seoul: Dunam.]
- 한상일 (2010).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창조와 혁신*, 3, 223-246.
- [Han, S. I. (2010). Social enterprise and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3, 223-246.]
- 한상일, 김경희 (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 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



- 색. **지방행정연구**, 27(3), 153-180.
- [Han. S. I., & Kim. K. H. (2013). Mobilizing community assets in Korean social enterprises : Searching for the vit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perspectiv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7(3), 153-180.]
- Atkinson, D. (1992). **평화의 신학**. 한혜경, 허천희 역, 서울: 나눔사. (원저 1986 출판)
- [Atkinson, D. (1992). *Peace in our time?: Some biblical groundwork*. Translator : Han. H. K., & Huh. C. H. Seoul: Na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Barki, H. & Hartwick, J. (2004). Conceptualizing the construct of interpersonal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5(3), 216-244.
- Bushe, G. R. (1995). Advances in appreciative inquiry as an organization development interven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13(3), 14-22.
- Bushe, G. R. (2007). Appreciative inquiry is not (just) about the positive. *Organization Development Practitioner*, 39(4), 30-35.
- Cooperrider, D. & Whitney, D. (2009). **조직변화의 긍정혁명**. 유준희·강성룡·김명언 역. 서울: 도서출판 쟁이. (원저 2005 출판)
- [Cooperrider, D. & Whitney, D. (2009). *Appreciative inquiry : A positive revolution in change*. Translator : Yoo. J. H., Kang. S. Y. & Kim. M. Y. Seoul: Jaengi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Duchrow U., & Liedke G. (1989). *Shalom*. WCC Publications.
- G. von Rad. (1961). *Shalom in the O.T.* TDNT II.
- Kretzmann, J. P. & McKnight, J. L.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Skokie: ACTA Publications.
- Leonard, S. (2019).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원저 2004 출판)
- [Leonard, S. (2019).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Translator : Yoon. J. 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Moltmann, J. (2011).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광해원 역. 서울: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원저 2008 출판)
- [Moltmann, J. (2011). *Sein name ist gerechtigkeit*. Translator : Kwak. H. W. Seoul: 21st Century Church and Theology Forum.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Plantinga, C. Jr. (1997). **우리의 죄, 하나님의 살림**. 오현미 역. 서울: 복있는 사람. (원저 1996 출판)
- [Plantinga, C. Jr. (1997).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A breviary of sin*. Translator : Oh. H. M. Seoul: Himes sa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Ed.). (1996).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Houghton Mifflin Company.
- Wolterstorff, N. (2007).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홍병룡 역. 서울: IVP. (원저 1983 출판)
- [Wolterstorff, N. (2007).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Translator : Hong. B. Y.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뉴스1. (2022.04.11.). 사회갈등지수 4년새 거의 2배...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1/112792594/1> (2023년 6월 10일 인출)
- 김윤덕. (2022.5.13.). 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A/](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A/) (2023년 6월 10일 인출)
- 연합뉴스. (2019.06.04.). 국민 10명 중 8명 "사회갈등 심하다"...통합·희망에도 '부정적'.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043667Y> (2023년 3월 9일 인출)
- 김영배. (2021.08.19.). 한국 '갈등 지수' OECD 3위로 최상위권...인구밀집도는 심각.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

conomy/economy\_general/1008235.html (2023년 5월 5일 인출)

정찬. (2023.05.24.). 한국사회 갈등 '與野94%-이념92%-빈부88%-노사88%-영호남73%'. 폴리뉴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553> (2023년 6월 20일 인출)